

지역 농산자원 활용 농생명바이오 산업화 이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 특화 자원 고부가가치화 연구 통해 기능성 소재 발굴·기술이전 등 성과 도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이하 연구원)은 전주 농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과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을 통해 학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1일 연구원에 따르면 농가·기업·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연구원은 전주미나리와 모주, 쿵, 바다나물 등 지역 자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과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농가·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연구원은 최근 2년간 △건강기능성 규명 3건(인체적용시험 포함) △지식재산권 확보 4건 △시제품 제작 3건 △기술이전 4건 △기술이전 기업의 신규 고용 34명 △지역 농가로부터 원재료 구매 1억600만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연구개발 결과가 단순한 학술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나리 숙취해소 제품의



김상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이 전주 농산자원 활용 농생명바이오 산업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우 연구원에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검증한 뒤, 기술을 바이오모아메디칼(췌)에 이전해 지난해 5월 음료 ‘깨나리’ 출시로 이어진 사례다. 따라서 지역 농가의 미나리 계약재배 확대와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로 연결됐으며, 미나리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산업적 가치를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연구원은 전주 특산물인 모주에 대해서는 항산화·미백 효능을 새롭게 발굴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씨애플코스메틱스에 이

전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주모주 마스크팩’과 ‘전주모주 썬스틱’이 출시되기도 했다. 이 제품들은 영국과 인도, 일본, 베트남 등 4개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싱가포르 수출 등록을 완료해 전주 특산물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쥐눈이콩(서목태) 기반 연구를 통해 체취의 주요 원인 물질인 ‘노네날’ 제거 효능을 과학적으로 확인, 노화 관련 체취 개선 기능성을 검증했다.

연구원은 현재 쥐눈이콩 추출물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쥐눈이콩 복합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관련 후속 연구와 제품 개발로 연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또 식물 유래 유산균 활용 기술을 지난 8월 농업회사법인 웰앤뷰(췌)에 이전했으며, 현재 기업 주도로 상용화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원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발효 두유 등 비건 제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미나리와 식물인 바다나물(전호)의 주름개선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으며,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록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지난 8월 정보유훈회사와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맺고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남 연구원장은 “지역 농산자원을 활용한 농생명바이오 산업화는 단순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넘어, 전주시가 특화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된다”면서 “연구개발, 기술지도, 판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시민·농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한옥마을, 추석 명절 놀이마당 된다

추석 당일 제외 3~9일 체험 프로그램·이벤트 등 풍성

가장 한국적인 여행지로 손꼽히는 전주한옥마을이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을 위한 놀이마당이 된다. 전주시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전주한옥마을 문화시설들을 중심으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전주전통술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시설들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생활 속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전주전통술박물관의 경우 이번 연휴 기간 ‘술놀이연, 술잔에 보름달을 채워라’ 행사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5일과 7일에는 신도주를 주제로 한 미션 투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무료로 진행된다. 또 3일과 4일, 8일, 9일에는 전통주 3종을 시음할 수 있는 유료 시음 체험이 운영된다. 전주전통문화관에서는 한가위 합인 행사로 합죽선·단선·부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99명의 교통 통제 인원이 집중 배치돼 교통 혼잡 최소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예초작업과 시설물 점검 및 정비비를 집중 시행한 데 이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이동식 화장실을 일차 운영기로 했다.

단 추석 당일인 오는 6일에는 화장시설이 휴장하며, 성묘 차량 및 운구 차량의 진입이 제한된다. 여기에 시는 성묘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효자공원 내에서의 조화 사용 금지 및 친환경 추모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집중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추석 명절 맞아 성묘객 맞이 만전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승화원을 찾는 추모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 교통 대책과 장사시설 일제 정비 등의 종합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시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성묘객 맞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야외주차장(400대)과 유연로변(500대)을 포함해 총 900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해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질서를 강화기로

추석 연휴 전주·완주 여행 한 번에

추석 당일 제외 5~9일 ‘전주·완주 시티투어’ 운행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연휴에도 운영된다. 전주시는 전주·완주의 관광객 유치 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오는 5일부터 가을코스로 새단장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일은 5일부터 9일까지 총 4회 운영되며, 추석 당일(6일)은 제외된다. 주요 코스는 완주의 상판팬택나무숲, 전주의 수목원과 한옥마을을 아우르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수목원

특히 가을 시즌을 맞아 기존 운행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긴 시간에 임실 국화축제를 가볍게 둘러볼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투어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여행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5-8800)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형 영화 산업 육성 전략 모색 포럼 개최

대한민국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전주형 영화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전국의 영화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주시가 특화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된다”면서 “연구개발, 기술지도, 판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시민·농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전주형 영화산업 육성에 대한 실효를 모색하기 위해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로부터 OTT 전성시대에 전주가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미래의 영화인들로 성장할 전주대학교 영화영상학부생 50여 명이 참석해 영화산업에서 AI의 중요성을 깨닫고 OTT 시대 영화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번 포럼 외에도 영화 제작 협단 기법과 최신 장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영화 실무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전주대학교와 꾸준히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정드림요양병원,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전해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에 소재한 전주 정드림요양병원(원장 최혜은)은 지난날 30일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송천1동 주민센터(동장 전지현)와 송천2동 주민센터(동장 최용신)에 각각 30개씩 총 60개의 라면 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기탁받은 라면상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세대, 독거어르신 등 송천1·2동 취약가구 6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혜은 전주 정드림요양병원장은 “추석을 맞이해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



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라면상자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과 이웃사랑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Real Fresh

참프레

CHARMFRE

“참! 착하게 키웠습니다”

동물복지 닭고기

“가족의 건강에 답하다”